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만나 협력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권’이 강조되면서 협치 혹은 거버넌스라는 형태의 구조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혁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민간의 역량을 공공 영역으로 어떻게 끌어들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공공과 민간이 만나게 되면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곤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은 별도로 하고 지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힘의 불균형과 속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공공이 갖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예산’이다. 지금까지 불안전 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적 자금만큼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없다. 많은 예술가들이 불합리한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공공의 존재 이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다. 공공의 모든 사업은 예산을 기초로 한다. 차기 연도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되면 정부나 지자체의 모든 부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른다. 정해진 예산에서 자기가 속한 부서나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때론 눈물겹다.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싸움도 치열해져서 사실상 ‘예산 전쟁’은 1년 내내 전개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매년 정해진 사업과 예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실무자 정체성이 강할수록 이러한 원칙을 더 강조한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매년 하던 사업들을 없애는 일이 쉽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매년 반복되는 보도블록 교체도 비슷한 이유이고, 공공 혁신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시민들이 공공 영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여기서의 문이 생긴다. 시민과 가장 밀접해야 할 공공이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공공 혹은 행정의 존재 이유라는 물음에 가 닿는다. 행정은 시민들이 모여 살아가는 국가와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작동할 때가 많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출발해서 사고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틀에 나와 있는 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아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전도되어 위의 규칙으로 아래를 통제만 하는 것이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최근 정부가 도시 재생과 생활 SOC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조만간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결과는 새로운 시설이나 공간 등 하드웨어의 변화일 것이다. 문제는 하드웨어의 변화까지 공공이 책임을 지지만 대부분 그 후에는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공간 운영의 방향과 주체마저도

공간이 완성된 이후에 고민하는 일이 많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처음 예산과 사업 계획이 정해지면 바로 운영 기획과 방향, 주제 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공공시설 중에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간은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지역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은 공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 불균형과 불일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민간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언젠가 공공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공공 영역의 가장 큰 위험성은 자신의 존재 즉 정체성을 스스로 완성하려고 할 때이다. 자기 스스로 완결 구조를 갖추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 공공성은 철저히 시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가 자기 완결성을 갖는 조직이 된다면 대기업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혁신을 하고 잘못하면 망하기도 하지만, 공공은 잘 망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공공의 존재 이유는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공공이 갖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예산’이다. 지금까지 불안전 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적 자금만큼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없다. 많은 예술가들이 불합리한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공공이 완성된 이후에 고민하는 일이 많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처음 예산과 사업 계획이 정해지면 바로 운영 기획과 방향, 주제 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공공시설 중에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간은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지역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은 공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 불균형과 불일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민간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언젠가 공공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공공 영역의 가장 큰 위험성은 자신의 존재 즉 정체성을 스스로 완성하려고 할 때이다. 자기 스스로 완결 구조를 갖추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 공공성은 철저히 시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가 자기 완결성을 갖는 조직이 된다면 대기업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혁신을 하고 잘못하면 망하기도 하지만, 공공은 잘 망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공공의 존재 이유는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공공이 갖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예산’이다. 지금까지 불안전 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적 자금만큼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없다. 많은 예술가들이 불합리한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종교칼럼

‘익숙함’이라는 마법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3박 4일로 잡아 놓은 휴가가 반토막에 반토막이 나버렸다.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2박 3일로 줄고 다시 급기야 1박 2일로 줄었다. 이렇다가 8월달엔 하루도 쉬지 못할 거 같았다. 그나마 남은 1박 2일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아 만사 제쳐두고 일단 절을 나왔다. 나오긴 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나왔으니 어디서 하룻밤을 보낼지 막막했다. 8월, 관광지가 피서지는 사람들로 미어터질 것이 분명하니 갈 수 없다. 그렇다고 절에서 사발리다가 다시 절에 가서 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서울로 간다면 불거리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있으니 좋긴 하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룻밤이 전부. 서울은 너무 멀다. 선택의 폭은 좁았다. 나는 가까운 도시의 호텔로 방향을 잡았다.

밝은 빨리 찾아왔다.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있다가 케이블 TV를 틀어 여기저기 채널을 돌렸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 (Cast Away)를 하고 있었다.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서 새삼스러웠다.

무인도에 홀로 표류된 톰 헉스를 ‘나 홀로’ 물고리미 바라보았다.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주인공 ‘척 놀랜드’는 배구공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배구공이 그와 대화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그는 배구공에게 월슨이라는 이름까지 불려 주었다. 월슨은 그의 돌도 없는 단짝이었다.

그도 홀로, 나도 홀로. 졸지에 무인도에 표류된 그와, 팔자 좋게 호텔방에서 뒹구는 나를 비교하는 것이 정말이길 말도 안되는 일이지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었다. 그에겐 무척 미안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그와의 깊은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내가 홀로인 것은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절, 방, 거리, 그리고 모두가 사람들로 손에 익고 마음에 익으면 편안해야 하는데 어쩌서 집이 되어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 홀로’ 인척 놀랜드를 보고 있자니

공이 집 나와 ‘나 홀로’ 낯선 호텔방에서 TV나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내가 보고 있는 건 척 놀랜드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기를 쓰고 익숙함에 서툰 초콜릿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 나 자신이었다.

배구공 월슨과 너무나도 리얼하게 대화하는 척 놀랜드를 보다가,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배구공은 그냥 배구공이다. 배구공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살아 있는 생물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물건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에게 그 배구공은 월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격체다. 물건이 졸지에 대화 가능한 인격체로 변신했다. 마술 같은 일이다. 마치 그가 배구공에게 마법이라고 부른 것 같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내 주변의 모든 것, 친지, 동료, 신도들에게 마법을 걸었다. 그것은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마법이었다.

그의 마술은 오직 그 자신에게만 먹히는 마술이다. 오직 그에게만 배구공은 인격체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인격체로 보고, 인격체로 생각하고, 인격체로 상대하기 때문이다. 배구공을 인격체로 만든 것은 바로 척 놀랜드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는 배구공이 아니라 자신

에게 마법을 걸었던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한 일은 세상을 향해 나의 감정들을 덧대고 또 덧대는 일이었다. 그가 배구공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찾길 배구공을 바다에 버렸다가 다시 찾아서는 미안하다고 우는 것처럼, 나도 내가 덧씌운 그런 감정들에 내가 휘저겨졌다. 내게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건 마법에 내가 속아서 자신에게 눈이 멀어 버린 것이다. 그에게서 느꼈던 묘한 동질감은 이것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진정한 이유는 자신에게 걸린 마법을 풀고 싶은 내면의 울림 때문이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바로 그 때가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본다. 지혜롭진 않지만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겨우 자신을 볼 수 있다. 스스로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영영 자신에게 건 마법을 풀지 못한다. 어리석음이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고

혁신도시 SRF 협상 순서를 바꾸자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지난 8월 30일 협상 타결을 기대했던 빛가람 혁신도시 13차 SRF(고형 연료) 거버넌스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 고형 연료 사용과 광주 SRF 반입의 한시적 허용에 관해 주민 대표와 한국난방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7월 22일 11차 회의에서 ‘1차 합의서’에 서명했는지라도 최종 합의서가 타결이 되지 않으면 1차 합의서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매몰 비용과 운영 손실을 물어내라며 생떼를 쓰는 난방공사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8월 14일 12차 회의에서 난방공사의 강력한 요구로 ‘주민 수용성 조사 이전에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난방공사가 과도한 손실 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합의서(1차 합의서)에 서명했을 지라도 나중에 거버넌스가 파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 경우 주민 입장에서 소극장 기능을 멈추게 하거나 광주 SRF 반입을 막을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 역설적으로 기본 합의서만 타결되면 난방공사는 꽃놀이패를 쥐게 되고 거버넌스를 깨기만 하면 바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13차 회의에서 주민측 협상 대표는 최소한의 담보 장치로 ‘한시적 연료 사용 허가’와 광주 SRF 반입을 주장했으나 난방공사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6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난방공사가 한시 허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의 시기를 기존의 ‘주민 수용성 조사 이전’까지에서 ‘시험 가동 작수 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한다. 현재 협상안은 ‘기본 합의서 서명→환경 영향 조사→손실 보전 방안 마련(부속 합의서 서명)→주민 수용성 조사’의 순으로 진행

하게 돼 있다. 이 순서를 ‘기본합의서 서명→환경 영향 조사 용역 발주→부속 합의서 서명(손실 보전 방안 마련)→시험 가동→주민 수용성 조사’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주민 수용성 조사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기존 합의안의 추진 일정을 살펴 보자.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해 ‘용역 발주 2개월 + 시험 가동 3개월 + 보고서 작성 1개월’로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9월 초 시작하면 빨리야 내년 2월 말이 돼야 환경 영향 조사를 완료한다. 환경 영향 조사를 하는 동안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안의 핵심 사항이다.

그러나 중간에 4월 총선이 끼여 있다. 이것이 변수다. 총선을 기점으로 2개월 전후에는 주민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빨라도 내년 6월이 돼야 가능하다. 총 10개월이 소요된다.

수정안의 일정을 살펴 보자. 기본 합의서 서명 후 4개월 내에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동시에 2개월 가량 소요되는 환경 영향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절차를 완료해 둔다. 손실 보전 방안이 마

련되면 부속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시험 가동 3개월 + 보고서 작성 1개월’의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한다. 이 시점이 내년 4월이다. 거기에 주민 수용성 조사 2개월을 보태면 총 10개월이 걸린다. 주민 수용성 조사 완료 시기는 내년 6월로 원안과 동일하다.

시험 가동 이전에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 한시적 연료 사용 허가나 한시적 광주 SRF 반입에 관한 격렬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난방공사는 본인들 주장하는 바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SRF 폐쇄시 손실 보상 방안을 시험 가동 착수 이전에 모두 마련했기 때문에 원안보다 보장 장치가 더 확실하다.

주민들도 중간에 거버넌스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산자부-전남도-나주시도 어차피 손실 보전 방안 마련에 동참하기로 한 이상 한두 달 뒤로 미룬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다. 순서만 바꾸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14차 거버넌스 회의가 모처럼 밝은 날으로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社說

강풍과 폭우 동반 태풍 ‘링링’ 대비 철저히

한반도로 북상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의 기세가 무섭다. 생성 초기에는 약했지만 북상하면서 점차 몸집을 키워 강한 태풍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링링은 내일 오전 아홉 시께 목포 서남서쪽 100km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해 제대로 대비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태풍은 특히 초속 35-45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에 의한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초속 45km는 시속으로 환산하면 162km에 해당하는 바람의 파괴력이다. 나무가 뽑히고 사람이 날아가거나 작은 차와 배가 뒤집힐 수 있다. 강풍 반경이 300km를 넘기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은 강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내일 오전을 기점으로 광주-전남에 최대 20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비엔날레 개막 ‘디자인의 바다’에 빠져 보자

내일 2019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된다. 8회째를 맞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개인(Human)과 인류 공동체(Community)적 가치로서 국제 사회의 이슈인 ‘휴머니티’(Humanity)다. 세계 50여 개국에서 65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1130여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먼저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 빈센트와 윈디가 디자인한 팝업가든 ‘어번 블룸’(Urban Bloom) 등 전시관 앞 상징 조형물들과 마주하게 된다. 다섯 가지 본 전시는 주제관(사람을 노래하다)과 국제관(다음 세대에 주는 선물), 기업관(사람, 사람들을 위한 기술)과 체험관(상당히 나, 나, 우리) 및 산업관(광주 다음, 광주사람들의 생각)으로 나뉜다. 진행된다.

디자인이 개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 도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

늘날 애플 아이폰에 이르기까지 현대 디자인의 뿌리 역할을 하는 바우하우스 100주년 역사를 보여 줄 국제관 바우하우스 특별전 역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광주 디자인센터 전시관(1-2세션)과 남부대 수영장(3세션)에서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프랑스 다니엘 뷔렌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회화와 미디어아트, 판화 및 설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디자인은 우리 생활과 밀착돼 있다. 한 개인의 의식주 모든 부분에서 연관되며 도시를 변화시킨다. 2005년부터 시작된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14년간 이어지며 광주의 도시환경과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주 폴리’(FOLLY)가 대표적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리는 2019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아 현대 디자인의 바다에 흠뻑 빠져 보자.

無等鼓

“역사는 파괴하면 극복할 수 없다. 보존하고 보여 주어야 한다.” 독일 정부는 2006년 독일월드컵 경기장에 나치 유물 전시장을 설치했다. 이곳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이 열렸던 곳으로, 관중들이 좌석으로 가기 전 각종 전시물을 보며 당시 히틀러가 어떻게 올림픽을 나치 체제 홍보 도구로 악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독일인들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반성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세계인들에 알리고 있다.

표시하기도 했다.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 내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해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베 정부는 위안부나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은 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 경기장을 전범기에 뒤덮었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히틀러가 베를린올림픽을 나치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처럼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도 극복과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부흥 올림픽’을 꿈꾸고 있다.

욱일기

문제는 IOC가 욱일기 표 팀 수비수 시무니치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자 경기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나치식 경례와 함께 ‘조국을 위해!’라는 구호를 선창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고 월드컵 무대에서 퇴출됐다. 또한 2018 러시아월드컵 유럽 예선 독일-체코 전에서는 일부 독일 관중들이 ‘승리 만세!’라는 나치 구호를 외치자 화가 난 독일 축구 대표팀 뢰브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심한 팬들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독일의 수치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문제는 IOC가 욱일기의 의미와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은 “욱일기 티셔츠를 많이 입었다”는 발언까지 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사필귀정.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오히려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가 팔려야만 이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재관 편집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체육부 220-0633 예향부 220-0692 사건부 220-0694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